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홍xx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도시	릴
파견대학	ISTC	파견기간	2023-1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프랑스 릴이라는 소도시에 있는 대학이며, 그 중 ISTC는 릴 가톨릭 대학에 소속 되어있는 미디어 분야 단과대학입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이 단과대별로 지역 곳곳에 분포 되어있어 ISTC 자체는 작을 수 있지만 근방에 대학 도서관과 본부가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교환학생이 많아 교환학생만으로 이루어진 수업들이 있으며,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도 많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전혀 하지 못해도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교환학생 담당 선생님이 잘 챙겨주려고 하시며 잘 못 따라가더라도 출석만 잘 하시면 성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에 팀플이 있고, 대부분 전략보고서를 작성하는 팀플입니다. 한국의 경영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수업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경영지식(4P, SWOT 등)을 모르신다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처럼 자세하게 수업을 해주시진 않는 편입니다. 모든 수업에 팀플이 있다보니 발표가 3개씩 겹칠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처럼 열심히 준비하는 편이 아니라 큰 부담을 가지진 않으셔도 됩니다.
2023-1학기 수업	Communication and media theory – 팀플로 이루어진 수업이며 transmedia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이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론 수업이 가장 잘 구성된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말 시험이 있었습니다.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beginners) – 프랑스 어 수업입니다. 옛날에는 프랑스어로 수업하신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영어로 진행합니다. 역할극 등으로 재밌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에 프랑스어를 꼭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만

	추천합니다. 주로 1교시에 시작해서 저는 중간에 드롭 했습니다. Graphic design for social media – 포토샵 수업입니다. 어떤 분이 블로그에 컴퓨터실에서 수업한다고 해서 첫 수업 날 한국 학생 전체가 노트북을 안 가져왔는데, 포토샵 프로그램을 주시고 개인 노트북에 깔아서 사용하니 꼭!! 노트북을 가져가야 합니다. 처음 포토샵을 다루는 분은 어려울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교수님이 항상 20분씩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포토샵 수업이라 팀플 없습니다. 기말 시험을 봤습니다.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교환학생만 수강 가능합니다. 교수님이 한 주제(생활 방식 등)를 던져주시면 그 주제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님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강의식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는지 알 수 없으며, 특히 영어를 못 하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팀플은 2인 1조로 진행됐습니다.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 프랑스에 가서 첫 번째로 들었던 수업입니다. 수업은 2번정도 하고, 나머지 수업시간은 팀플 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젝시믹스를 멕시코에 가서 판매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전략보고서를 작성했는데, 4년동안 경영학과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써먹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Negotiation – 협상수업입니다. 마지막 날 2명씩 짝을 이뤄 협상하는 것이 기말고사라고 하셔서 드롭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했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아티클을 읽고 팀을 나눠 각자 팀이 이기도록 협상을 하는데 많은 협상의 기술도 배우고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협상하는걸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 꼭 수강할 것을 추천합니다! Communication & plan – 팀플이 2번 있었습니다. 장기 팀플이 2번 있다보니 지치는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팀플만 하면 되는 수업이기에 나쁘지 않은 수업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친구들이랑 했는데 계속 연락을 씹다가 전 날부터 피피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지만 당일 날 결과물은 너무 잘 만들어와서 저에게 많은 심경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던 경험이었습니다.

	Visual communication –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3번이나 빠지는 바람에 기억에 많이 안 남는 수업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친절하시고 팀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다같이 요리해서 먹는다고 하셨는데 진행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교환학생 오티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 관련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알려주시며(심지어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까지도), 학교 생활 외 프랑스 생활하는 팁 같은것도 알려주십니다. 프랑스는 행정처리 할 것이 많은데 행정처리를 도와주는 업체도 무료로 연결해주십니다. (저는 그냥 저 혼자 했습니다.) 교환학생 담당 줄리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시며 다른 프랑스분들과 다르게 메일을 보내면 굉장히 빨리 답장을 주십니다. 교환학생 도우미 BDI가 있습니다. BDI에서는 파티, 여행 등 교환학생 친구들이 학교 생활, 프랑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합니다. 또한 프랑스 친구와 1대1로 친구를 매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저는 놀랍게도 작년에 순천향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왔던 친구가 매칭되었습니다. 완전 신기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1월에는 절대 프랑스를 가지 마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며, 해가 11시에 떠서 4시에 집니다.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갈 예정이라면 되도록 2학기에 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3월이면 날씨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귀국하는 5월까지 긴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5월 중순부터는 날씨가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안전	동네에서 칼을 든 강도를 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가게의 유리들이 깨져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깨진 것 같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습니다.) BDI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도 파티 같은 경우 밤에 진행되는데 저는 기숙사가 멀리 있어서 돌아오기 무서워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되도록이면 밤에 안 다녔고, 여행 등의 이유로 밤에 다녀야할때는 꼭 친구랑 함께 다녔습니다. 릴은 그래도 대학교, 초중고등학교가 많은 도시기 때문에 안전한편에 속합니다. 저는 주로 낮에만 다녀서 그런지 위협을 당한적이나 위험하다고 느낀적은 없습니다. 인종차별도 당한 적 없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오히려 반갑게 인사해주십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O) 기타( )* 저는 학교에서 추천해준 릴에 있는 사설 기숙사 업체 AEU를 이용하여 기숙사를 구했습니다. 저의 방은 [Saint Gerard]였습니다. 선택지가 많았는데 저는 학교에서 멀지만 방 안에 개인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 방을 골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올 예정이었어서 멀지만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 방을 골랐지만, 되도록이면 학교 근처 방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설은 조금 안 좋을지라도 학교와 릴 시내가 가깝기 때문에 걷기에도 좋고, 많은 다른 한국 친구들도 학교 근방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도 용이합니다. 특히 버스 파업 기간에는 제 방에서는 학교에 갈 방법이 없었어서(버스가 파업하면 보통 택시가 안 잡힘) 학교도 못 갔습니다. 방 자체는 좋았습니다.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다른 방보다 넓고, 방세에 전기세와 수도세가 포함되어있어 거주 자체는 좋습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O) 기타 ( )* 프랑스는 외식비가 비쌉니다. 하지만 식재료 비용은 한국보다도 훨씬 쌉니다. 그래서 직접 요리를 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는 한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식을 자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아시안 마트가 있지만, 물건이 별로 없고 비쌌기 때문에 저는 한식 재료는 주로 파리에 갔을 때 k마트라는 한국마트에서 사왔습니다. 쌀은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쌀과 비슷한 쌀을 드시려면 초밥이 그려져 있는 쌀을 구입하세요.

교통	통학할 때는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학생이라면 한 달에 4만원? 정도에 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어서 교통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tgv max(10만원 정도를 내면 한 달 기차료가 무료)를 구독해 파리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플릭스버스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벨기에는 5000원, 영국은 2만원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갈 때 유로스타를 타면 20만원이지만 플릭스버스를 타면 2만원으로 다녀올 수 있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50만원	왕복 아시아나 직항 1월1일 출국 5월 11일 귀국
Fees	0원	학교에 지불한 비용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험료	4만원	프랑스에 거주하시려면 주택보험을 꼭 들어야 하고, 주택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 건강보험을 들어야 해 저는 이 두가지를 가입하느라 한국 여행자 보험 드는 것을 깜빡하였습니다. 다행히 별 탈 없이 돌아와 문제가 없었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되도록이면 한국 건강보험도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랑스 주택 보험금은 1년에 10만원정도 하여 저는 5개월에 4만원, 프랑스 건강보험은 무료입니다. 보험료는 처음 들 때 1년치를 미리 내고, 중간에 해지하면 돌려줍니다.
숙소	70만원*4	월 70만원(방세, 전기세, 물세, 관리비 포함) 한 번 배수구가 막혔는데 엄청 빨리 오셔서 수리해주셨습니다.
식비	30만원*4	식비 및 외식비
교통비	20만원*4	한 달 버스비 - 4만원 Tgv max - 10만원 그 외 택시비, 플릭스 버스 타는

		비용 등
책값	0원	책은 사지 않았지만, 노트북 필수
기타1	500만원	여행비 (영국 3번, 파리 10번, 벨기에 4번, 이탈리아, 스위스, 니스 1번씩 방문)
기타2		
합계	1,134만원	그 외 짜잘한 비용까지 합치면 1,500만원 정도 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영어를 많이 많이 많이 공부하십시오!! 저는 영어가 많이 부족한 상태로 다녀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즐기고 못하고 배우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 할수록 얻어가는 부분이 곱절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세요!! 출국 전이라면 알바를 많이 해서 많은 돈을 모아가세요. 해외에 나왔을 때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가고싶은 나라가 많았는데 자원의 한정으로 다 가지 못한게 조금 아쉽습니다.

프랑스에 간다면 caf는 꼭 하세요! 프랑스에는 caf라는 주택보조금이 있습니다. 처리해야할 서류도 많고 실제로 저는 귀국 후에 받긴 하였지만 꽤나 쏠쏠합니다. 일단 신청해놓으시면 언젠가는 들어오니 단기간이라도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프랑스에 사시려면 많은 인내심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가도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심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는 순간 본인만 힘들어집니다. 그냥 '난 여행왔고, 모든 상황을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잘 가던 기차가 갑자기 멈추더니 1시간 동안 운행을 중지하고, 파업으로 인해 예약했던 버스나 기차 심지어 비행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가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월달에 신청한 주택보조금은 귀국 후인 6월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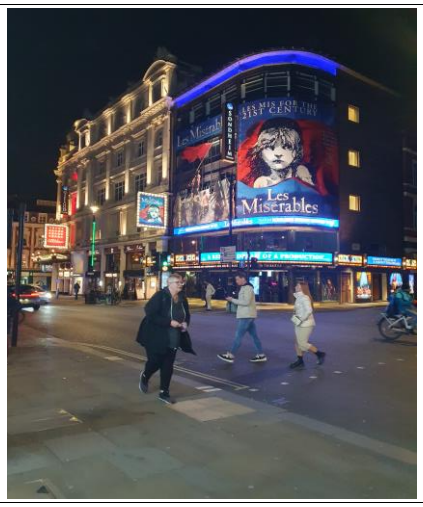
하지만 모든 프랑스분들은 친절합니다. 말이 안 통해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시며 항상 웃어주십니다. 프랑스에 있는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친절하신 이웃 분들이 계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시간만에 벨기에, 파리, 영국에 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이점이었습니다. 단점을 상쇄시킬 장점들도 많으니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외에 혼자 나가서 사는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재밌고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 앞 사진입니다.

파리 북역입니다.

제가 릴에서 가장 좋아했던 식당입니다. 이름은 la bellezza !		동네에 1달동안 개장하는 놀이동산입니다. 재밌어요!!
		
릴 시내입니다. 겨울에는 커다란 관람차가 설치됩니다.		영국 거리입니다.